

뉴욕필, 역사적 평양 공연

# 감미로운 선율 '은둔의 땅' 깨우다

## 객석 꽉 메운 北 관객 기립박수 "브라보" '음악광' 김정일위원장 끝내 안 나타나

'은둔의 왕국' 북한이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세계의 일원으로 합류했다.

로린 마젤이 이끄는 뉴욕필 단원 105명은 이날 오후 6시6분 남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북한 국가인 '애국가'를 웅장한 선율로 선보이며 역사적인 평양 공연을 시작했다.

세계 3대 교향악단으로 꼽히는 뉴욕필은 북한 인공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무대 양편에 나란히 게양되고 관객들이 전원 기립한 가운데 북한 국가를 마친 뒤 곧바로 미국 국가 '별이 빛나는 깃발'을 연주했다.

뉴욕필은 이어 본공연 첫 작품으로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3막 서곡을 선사한 뒤 상임지휘자 마젤의 설명을 거쳐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을 공연했다.

지휘자 마젤은 신세계 교향곡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말로 "좋은 시간 되세요"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1천500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쏟아내는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들었다.

뉴욕필은 이어 거슈윈의 '파리의 미국인'을 연주했으며 연주에 앞서 마젤은 언젠가 "평양의 미국인"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해 청중들에게 웃음을 안긴 뒤 "즐겁게, 즐겁게 감상하세요"라고 또다시 우리말을 선사했다.

본공연을 마친 뉴욕필은 앙코르를 요청받자 비제의 '아틀르의 여인' 중 파랑들레와 빈스타인의 오페라 캔디드 서곡을 연주한 뒤 우리 전통민요 '아리랑'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그러나 '음악광'으로 알려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공연장에 '깜짝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는 달리 동평양대극장에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앞서 뉴욕필 단원들은 이날 오전 동평양대극장에서 실제 연주 의상 차림으로 2시간30분동안 최종 리허설을 가진 뒤 양각도호텔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갖고 본공연에 대한 기대와 각오를 밝혔다.

뉴욕필은 이어 평양음악대학을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실을 연 뒤 학생 5명에게 음악CD와 악보 등 미리 준비한 선물을 직접 전달하며 '문화외교의 전도사'로 활약했다.

뉴욕필은 27일 오전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과 실내악 협연을 실시한다. 조선국립교향악단은 이 협연 과정에서 마젤의 지휘를 받으며 연주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뉴욕필은 평양공연을 마치면 서울 공연을 위해 27일 오후 아시아나항공 특별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다.



**케냐 전통의상 입은 오바마**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지난 2006년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케냐 전통의상을 입고 소말리아 족장을 만나고 있는 모습. 이슬람교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힐러리 진영에서 의도적으로 오바마가 아프리카와 이슬람에 연결돼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유포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오바마, 거침없는 질주

## '미니 슈퍼화요일' 지지도 조사 힐러리 앞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전의 분수령이 될 내달 4일 '미니 슈퍼화요일'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전 상원의원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26일 발표된 CNN 등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1연승의 파죽지세세를 보이고 있는 오바마는 내주 경선이 실시되는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에서 힐러리가 그간 쌓아놓았던 우위를 급속히 잠식해 나가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CNN과 오피니언 리서치가 22-2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는 50%의 지지율을 얻어 46%에 그친 힐러리를 앞질렀다. 이는 지난주 초 조사에 비해 오바마는 2%포인트 상승하고, 힐러리는 4%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

가 22-24일까지 공동실시한 조사에서는 오바마가 백인남성 지지율에서 힐러리를 23%포인트의 격차로 앞섰다.

뉴욕타임스와 CBS가 최근 실시한 공동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텍사스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힐러리가 다소 앞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힐러리는 수세에 몰려있는 경선레이스의 반전을 위해서는 텍사스와 오하이오주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지만, 오바마의 최근 전국적인 상승세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뉴욕타임스와 CBS 조사에서 오바마는 54%의 지지율을 얻어 전국지지도에서 처음으로 힐러리(38%)를 앞섰다. 유에스에이 투데이와 갤럽의 25일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는 51%의 지지율로 39%인 힐러리를 따돌렸다.

# 6자회담 돌파구 열리나

## 라이스 美국무중 도착

론돌리아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중국에 도착해 중국과 북핵 6자회담 진전 방안 등 북핵 문제를 협의한다.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오전 양제츠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며 방중 기간 중 후진타오 국가주석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라이스 장관의 방중 목적은 6자회담의 진전"이라며 방문기간에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의 다음 단계 진전을 위한 구

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마감시한인 지난 연말을 넘기면서 교착국면에 접어들어, 미국은 '안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지키라며 서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6자회담 진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앞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내정자와 만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해도 좋다"고 말했다.

# "고구려는 독자적인 주권국가" 北 역사학자 中 동북공정 반박

"고구려는 고조선의 계승국이며 당시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주권국가였다."

북한의 역사학자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정면 반박했다.

26일 입수된 북한의 계간 '력사과학'(2007.2호)에 따르면 리광희 박사는 '고구려의 왕호에 대한 몇 가지 고

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고구려 군주의 칭호인 왕이라는 표현이 고구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징표의 하나"라며 고구려의 왕은 중국 황제의 제후라는 주장을 논박했다.

김일성종합대학 부학부장인 리 박사는 지난해 11월15일 고구려의 평양천도 1천580돌을 기념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에서 '고구려의 남방진

출 과정과 평양 천도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리 박사는 '력사과학'에서 "일부 고구려에서 나라의 최고통치자를 왕으로 표현한 것을 가지고 고구려의 군주가 중국의 황제 밑에 배속된 제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며 각종 사료에 기초해 동북공정의 역사왜곡을 '정조준'했다.

# 美, 무죄 확정 일본인 체포...양국 이상 기류

일본이 '최고의 우방'으로 손꼽는 미국과 일본 정부간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현지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등 잇따라 사고를 일으키면서 미군에 대한 일본인들의 감정이 악화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27년 전 무죄 판결을 받은 일본인을 미국 경찰이 체포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사건이 알려지자 "일본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의 용의자를 미국측이 이제 와서 다시 체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도 "미국측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표정들이다.

3000년 국가의 전통을 계승하여 79년 3월 31일 개교한 한빛공무원학원

## 79년 3월 31일 개교 기념

**79년 3월 31일 개교 기념**

개교 79주년 기념 행사

# 3월 31일

한빛공무원학원

##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일: 2008. 3. 1(토) 오전 8시

장: 광주월드컵경기장 및 협신길 일원(광주-남평교)

참가종목: 5km, 10km, 20km, 50km

시합 코스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일보

주최: 대한시민회(주)

주최: 광주광역시

주최: 대한체육회(주)

주최: 광주광역시

주최: 광주일보

주최: 대한시민회(주)

주최: 광주광역시

주최: 대한체육회(주)